
지적장애인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중심으로

박원희*, 최연숙**, 박성택***

An Exploratory Study on Digital Contents-based Life-long Sex Educa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Won-Hee Park*, Yeon-Sook Choi**, Seong-Taek Park***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장애인 대상의 디지털 성교육 콘텐츠 프로그램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디지털 성교육 콘텐츠 구성에 대한 연령별 제안과 피서의 성교육에 관한 정보·동기·행동·스킬 모형을 인적자원 개발에서 흔히 논의되는 역량(competency)이라는 개념의 모형을 적용·확장하여 성적역량(sexual competency)이라는 목표 하에서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모형과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주제어 : 지적장애인, 성적 학대, 평생 성교육, 디지털 콘텐츠

Abstract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sexual abuse due to multiple factors including life-long dependence on adults for care, trained compliance, social isolation, lack of education about sexuality and sexual abuse, and a societal view that devalues people with disabilities. Teaching about sexual abuse only may raise an individual's anxiety without promoting a healthy sexual identity. For many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the provision of formal sexual health education and sexual abuse prevention training has been shown to be protective against exploitation as well as increase appropriate sexual behavior. To maximize the reach of formal sexual health education and abuse prevention promotion effort, this article suggest exploiting the internet and digital contents as delivery vehicles that have uniquely suitabl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and outstanding ability to reach large numbers of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We review the sexual health education programs, utilizing the internet and digital contents, for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We also suggest the revised version of the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IMB) model of health behaviour change (Fisher & Fisher, 1992), and give a brief discussion of how useful this model is for constructing a life-long sex educa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ies, sexual abuse, life-long sex education, digital contents

1.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성은 인간의 전 생애 과정에서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24]. 그러나 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을 통한 성적지식 습득가능성이 매우 낮고 주위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력까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지적장애인들의 성적 행동에 대해 그릇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교수(제1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사후연구원(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7월 2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7월 20일

된 생각을 갖기 쉽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인 특징으로 인해 성적 발달에 독특한 문제를 지니게 된다는 일반인들의 그릇된 편견과 교사와 학부모의 무지와 무관심, 이성과 상호작용할 기회 및 성적 정보의 제한적 제공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영원히 아이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성에 대한 아이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성적인 욕구나 관심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되며, 오히려 성폭력이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대중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성적인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강렬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이다. 그만큼 이들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2008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여성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전체사례 중 7.9%가 장애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장애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6]. 그러나 성학대를 고소하는 경우가 6.1%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 학생들의 성폭력 상황에 대한 노출 및 피해 사례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성교육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신감을 북돋우며 사회적 적응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20], 단순한 성적욕구를 발산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있지 않다. 지적장애인들은 동년배들에 비해 관찰을 통해 적절한 사회적·성적 행위를 배우기 쉽지 않고 자체적인 개발 또한 어렵다.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조차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현상에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성적 욕구는 자신들의 표현 능력이나 욕구를 관철시킬 능력 부족으로 욕구 자체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난폭한 행동이나 이상 성격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성범죄의 경향을 띠게 될 수도 있다. 지적장애인들은 성적인 면에서 이성보다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과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로 연결되어 행복한 생활을 영

위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은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장애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다. 성교육에 필요한 교재, 참고자료 등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며 교사들 역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성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도 문제가 되고 있어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1].

정상인들도 학교 내의 공식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성적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실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에 대한 지식을 점진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혹은 그룹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한 학습을 우연학습(ignored curriculu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적장애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우연학습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학교내에는 물론, 쉬는 시간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에도 담임교사나 보조교사의 지원과 감독이 이루어져 사적인 교류의 가능성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우를 위한 공적인 성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개의 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성적불능현상을 조장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두려워할 시민의식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21]. 정신적 장애아들은 정상아들과 거의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적 관심을 키워가게 되지만, 정상아들에 비해 충실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는 정신장애들은 많지 않으며 받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가 있는 청소년들 역시 정확한 정보 획득이 쉽지 않다. 이들의 성적 권리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여 1983년부터 본격적인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는 발달단계에 따른 교사용 성교육 지도서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CD를 개발하고 학년별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10].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성교육 교재개발이나 지도체계 미흡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단순히 주입식 성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Garbutt(2008)에 의하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은 학부모와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의 교육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학습이 효과적 [15]이라고 한다. 또한 가급적 어릴 때부터 연령대에 맞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요구되며 비디오 포맷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비언어적인 성교육도 중요시 여겨야 하며, 단순한 성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차원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대부분 유인물, VTR, 컴퓨터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일 방향 교육방식[2][3][4]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들 또한 어떤 식으로 성교육을 진행할지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지적장애인들의 프라이버시를 거의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역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우를 위한 디지털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국내외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의 소개 및 평가

2.1.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의의

교육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자료변환이 용이해지고,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지원체계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그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9].

디지털 교육콘텐츠라 함은 기존의 VTR 교육과 이러닝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단순한 VTR 교육 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한 이러닝(e-learning)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이러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같이 극히 사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성교육 관련 정보 제공에 적합하다.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용이성, 프라

이버시의 보장[11], 물리적인 만남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과정 상의 당황함의 방지[16], 콘텐츠 내용과 학습속도의 개인적 통제 용이성 등이 성교육 분야의 이러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대효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러닝과 함께 최근에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 학습자와 교육내용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 방식에 비해 학습자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태도 및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정보의 자료변환이 용이해지고,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지원체계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그 정의가 확산되고 있다[9]. 디지털 교과서의 또 다른 이점으로 애니메이션 기능을 들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에 사용되는 애니메이션은 교과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추론시 요구되는 인지절차들을 간략화 시켜 학습시 인지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점을 지닌다[5]. 또한 Korat과 Shamir(2007)는 디지털 교과서 학습이 인지능력이 낮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단어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18]한 바 있다. 학습지원도구로서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근거로서 멀티미디어 및 애니메이션지원, 상호작용 촉진, 하이퍼링크를 통한 검색기능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역동적인 학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loom(1976)은 학습자 특성이 학업성취도의 65% 정도를 결정하므로, 개별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습자 각자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과 학습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자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12]한 바 있다. 학습자 개인에게 적합한 환경과 학습방법이란 학생의 능력과 적성 및 필요 등에 대한 개인적 니즈를 고려한 객체화된 수업이라는 의미이다. 지적장애아(정신지체로 진단을 받아 특수학급에 배정된 아동으로 개별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지능지수가 55-75이하인 경도장애아동)들에 대한 성교육 역시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 IEP)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적장애 정도에 따른 세밀한 개별화가 요구되는데 이 경우 디지털 교육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 학습 매체로서 최적의 대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 * 이러닝이나 디지털 교과서는 개인별 학습속도 조절 가능
- * 지적장애수준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 학습 가능
- * 학습 성과에 대한 자동화된 피드백 제공(예를 들어 칭찬, 점수 제시 등)
- *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 양을 줄여 여러 개의 블록으로 편집 가능
- * 이해력이 떨어지는 집단을 위한 그림, 애니메이션, 동영상,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임의 도입
- * 부모, 교사, 친구, 낯선 사람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한 아바타 활용중심의 역할연기(role play) 설계 가능, 예를 들어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부위와 그 정도에 관한 반복적 학습 가능

2.2 디지털 프로그램 ‘도움나라 사이트’

국내에서는 이러닝이나 비디오 형태의 장애인용 성교육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기관이 개발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도움나라[25]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다함께 공유하는 디지털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개발, 보급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통합화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시책, 연구보고서, 해외동향 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극히 빈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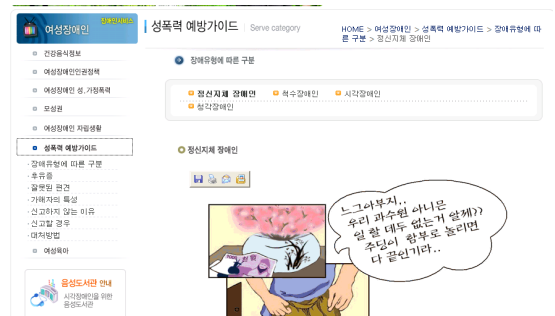
이 사이트는 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정보와 성폭력 예방정보에 관한 내용들을 장애유형별로 설명해 주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애니메이션으로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메뉴에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있으나, 남성장애인 측면에서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위주의 애니메이션만을 담고 있어 정보화시대라 불리는 지금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1] 도움나라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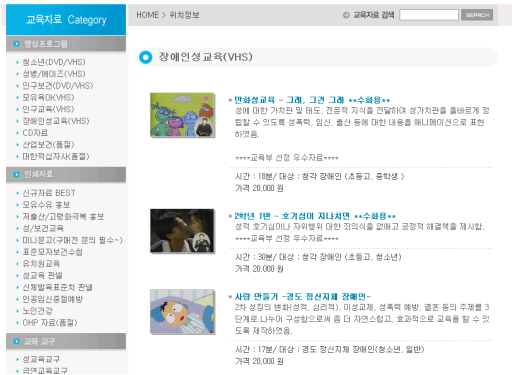
2.3 지적장애인용 성교육 비디오 『사랑만들기』

비디오 형태의 성교육프로그램은 인구보건복지협회[26]에서 개발하여 2004년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정신지체장애이용 성교육비디오 『사랑 만들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장애인 성교육 비디오 『사랑 만들기』는 그 동안 성교육에서 외면당해왔던 지적장애인들에게 성지식을 배우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2차 성정의 변화(성적/심리적), 이성교제, 성폭력 예방, 결혼 등의 주제를 3단계로 나누어 재미있는 스토리와 밝고 귀여운 캐릭터를 등장시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2] 도움나라 웹사이트의 성폭력 예방가이드 예시

그러나 이 비디오는 내용 자체가 상세하지 못하고,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캐릭터 역시 너무 구시대적이어서 지적장애인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4년 이후에는 업그레이드나 수정된 바도 없어 참신성도 떨어지는 콘텐츠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장애인 성교육 비디오

2.4 구미권의 지적장애인 성교육 콘텐츠 현황

구미권의 경우 게임을 통해 다양한 성교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 4]는 영국의 인기 있는 무료 온라인게임인데 성병에 대한 지식을 게임으로 알리는 콘텐츠이다. 이외에도 Adventures in Sex City 라는 유사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성병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림 5]는 콘돔제조업체인 Mates가 제공하는 게임으로 이 역시 안전한 섹스를 홍보하기 위한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보적 게임이다. 이같은 게임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심지어 제임스 스탠필드 (<http://www.stanfield.com>)와 같은 기업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서클스(Circles), 데이프 스마트(Date Smart) 등과 같은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성교육 디지털 학습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를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외 장애인 유형별로 성교육관련 자료는 <표 1>에 정리하였고, 디지털 교육상품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표 2>와 같다.

대부분의 성교육 사이트 프로그램들은 지적장애인들의 프라이버시를 거의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장애인 유형별 성교육 관련자료 제공 사이트

장애유형	웹사이트
자폐증	http://legacy.autism.com/individuals/sexualityandautism.htm
	http://www.education.com/reference/article/sexuality-instruction-autism-ASD/
	http://www.sexualhealth.com/channel/view_sub/disability-illness/autism-spectrum-disorders/
	http://www.autismuk.com/index9sub1.htm
	http://autism.about.com/od/transitioncollegejobs/t/sexed.htm
뇌성마비	http://www.child-autism-parent-cafe.com/sexuality-and-autism.html
	http://www.sexualhealth.com/channel/view_sub/disability-illness/cerebral-palsy/
시각, 청각장애인	http://nationaldb.org/documents/products/sex-ed.pdf
발달장애	http://www.sexualhealth.com/channel/view_sub/disability-illness/developmental-disabilities/
	http://aappolicy.aappublications.org/cgi/content/full/pediatrics;118/1/398
지적장애	http://www.aamr.org/content_198.cfm
	http://sexualityandu.ca/teachers/tools-10-1.aspx
학습장애	http://www.betterhealth.vic.gov.au/bhcv2/bhcarticles.nsf/pages/Sex_education_for_children_with_intellectual_disabilities
	http://www.nursingtimes.net/nursing-practice-clinical-research/teaching-sex-education-to-children-with-learning-disabilities/299962.article
정서, 지적, 학습장애	http://www.outsiders.org.uk/leaflets/pld-leaflet
	http://www.advocatesforyouth.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79&Itemid=177
이분	http://www.sexualhealth.com/channel/view_sub/disability-illness/spina-bifida-mylomeningocele/
	http://www.spinabifida-incontinence.info/sex.htm
척추장애	http://www.spinabifida-incontinence.info/sex.htm
	http://www.spinalcord.uab.edu/show.asp?durki=24434



[그림 4] 영국의 무료 온라인 게임 예시자료 1



[그림 5] 영국의 무료 온라인 게임 예시자료 2
(출처 : <http://www.webuser.co.uk/websites>)



[그림 6] 제임스 스탠필드사의 멀티미디어 자료 예시

3. 지적장애인 디지털 성교육 콘텐츠 구성에 관한 제언

지적장애인의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은 정보화시대와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지 않게 매우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지적장애인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함으로 여러 사건·사고의 피해자로서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2〉 장애인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사이트

웹사이트	교육정보 내용
http://disability-abuse.com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www.stanfield.com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회적 의사결정기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www.teach-a-bodies.com	신체구조와 성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www.thearc.org	지적장애아 및 보호자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제공
www.diverse-city.com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www.achievableconcepts.com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교재와 교구 제공
www.nichcy.org	장애아 및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전국 센터
www.austin-safeplace.org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방지 대책 및 교육 제공 사이트로서 교재, 비디오, 교구 등을 제공

3.1 연령 구간대별 교육내용 예시

박원희(2002)는 ‘여가, 적당한 오락기회, 깊은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말하며 여가 및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시사[5]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한 연령대별 성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인간관계 기술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장애아들을 위한 성교육도 연령대별로 여가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적장애아들을 위한 성교육도 정상아동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세 이하부터 관심을 가지며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은 일회성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교육대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한 성적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한 학습 없이 사고예방차원에서의 성폭력 피해 방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둔 교육내용은 지적장애아들에게 오히려 염려와 호기심만을 자극해 준다. 성교육은 가급적 이른 시점에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폭력 예방책과 건강한 성에 관한 교육은 성폭력 피해방지 및 건강한 성적 행동의 개발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기간 대별로 지적장애아들이 습득해야 할 교육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세 이하의 유아기 - 3세 이하의 유아의 경우 태어나면 성(gender)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 자신의 성에 대해서는 배울 수는 있다. 물론 이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나 상담전문가들이 이들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살이 넘어가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는다. 경우에 따라 다른 아이들과 성적 놀이를 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몸의 여러 기관에 대한 정확한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해야 하는 행동과 오픈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행동 간의 차이, 가족 간의 관계와 결혼에 대해서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17].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자신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제 3자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 일깨워 주어야 한다.

- 6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 사회적인 교류가 점점 중요할 때이며, 같은 성을 가진 어린이들과 놀이를 원하는 시기이다. 이 때 즈음이면 소년과 소녀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신체 기관 중 어느 부분이 극히 사적(private)이며,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는 지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야 한다[22]. 신체 기관의 정확한 이름과 기능, 특성에 대한 것도 재차 이해 시켜야 하며, 남녀 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구성요소, 의사결정기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성폭력 피해발생시 부모들에게 알리는 방법,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사춘기의 개념과 사춘기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아이들의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 전반기 - 대부분의 지적 장애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지만 일부는 장애 정도에 따라 다소 늦어지기도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장애아들도 심리사회적 발달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적장애아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에 대해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신적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행동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나 전문 상담인은 아이들이 느끼는 묘한 변화가 정상

적인 것이며 신체발달과정의 한 단계임을 주시시켜야 한다.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문제, 자위행위 성적 욕구의 절제, 피임, 성병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22]. 이 연령대의 장애아 부모들은 과보호경향이 있는데, 특히 딸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13]. 이들 부모들은 피임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두는데, 피임이 성병이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시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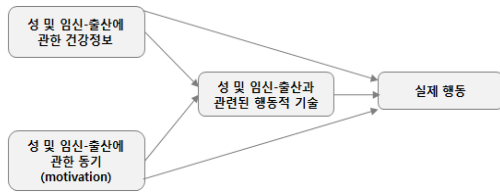
-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중반기 - 이 연령대에 달하게 되면 아이들은 남녀 간의 건강한 관계와 테이트, 성적 느낌의 처리방법, 사랑과 섹스와의 차이, 자위행위, 성적 orientation, 부적절한 접촉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 등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외 피임, 성병, 결혼과 양육의 책임 등의 개념에 대해서도 리비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아들은 유사한 장애를 가진 또래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시정해 주어야한다[19].

- 18세 이후 - 성인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 전환기가 시작된다. 정신장애아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중요 개념이 실생활과 행동에 확실하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반복 학습하여야 한다. 일종의 평생교육으로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19]. 성인으로서 유지해야 할 건전한 성적관계에 대한 논의가 가족, 상담자, 또는 보호시설 관리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2 교육내용 속성에 따른 구분과 상호연관성

성교육 내용은 지적장애아들의 성장과정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콘텐츠 내용에 따라 기본적 사실, 태도, 스킬, 가치관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isher & Fisher(2003)는 [그림 7]에서와 같이 정보-동기-스킬-행동으로 구성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 프로세스에 대응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역설[14]한 바 있다. 이 모형에서 동기는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사회적 영향, 특정 행위를 할 의사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며, 스킬은 객관적인 행위능력, 자기 효능감, 테크닉 등을 포함한다. 이 모형의 핵심은 성과 출산 등에 관한 건강정보와 이에 개인의 내재적 동기요인은 행동적 스킬의 학습과 개발로 이어지게 되며, 정보·동기·스킬은

다시 실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선행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보와 동기요인은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스킬의 개발·유지를 촉진시키며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가면서 실제 행동에도 간접적 영향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습득해야 할 지식과 스킬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이 모형에서와 같이 동기, 지식과 스킬 간의 연관성도 과정 개발 시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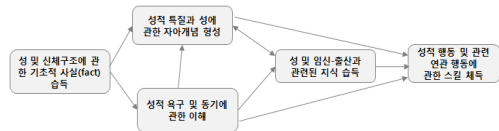
[그림 7] 피셔의 성교육에 관한 정보·동기·행동 스킬모형 (출처 : Fisher & Fisher, 2003)

Fisher & Fisher의 모형은 지난 10여 년간 많이 인용되어 왔지만, 인적자원개발에서 흔히 논의되는 역량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성적 역량 제고라는 시각에서 이 모형을 수정해 볼 수 있다. 교육이나 훈련이 역량개발에 있다면 디지털 콘텐츠 형태를 갖는 성교육 역시 성적 역량의 증진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역량은 지식, 동기(motives), 특질 (traits), 자아개념(self-concept), 스킬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며 개인이 소망하는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다[23].

역량의 구성요소에서 동기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일관되게 마음에 품고 있거나 원하는 것으로 행동의 근본원인이 되며, 주어진 목표를 향해 구체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 특질이란 한 개인의 사고나 행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만드는 소질로서, 환경과 자신에 대해 지각하며 관계를 맺고 사고하는 지속적인 패턴을 형성한다. 즉, 특질은 어떤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 일관되게 반응하게 하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과 같은 외적인 특성을 말한다. 흔히 외향적·내향적, 남성적·여성적으로 구분하는 성격도 다양한 특질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아개념은 주어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며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태도·가치관·자아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동기와 특질을 결합시켜 개인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지식이

특정 영역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계화된 정보라고 한다면 스킬이란 특정한 물리적 혹은 정신적 과업에 대한 숙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체화된 일종의 기술이다. 따라서 스킬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습득정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그리고 경험과 훈련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개인에게 특화된 결정체이다.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문제해결·의사결정 기술 등이 흔히 예로 드는 스킬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지식과 스킬이 밖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역량이라 한다면 동기, 특질, 자아개념은 속에 숨겨있는 요소로서 잘 드러나지 않아 평가하기도 힘들고 교육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개발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지식과 스킬은 동기, 특질 그리고 자아개념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과 적절히 결합될 때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역량은 행동이나 활동이 수행되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역량측면에서의 접근은 학습 결과가 활용되는 삶의 영역에서 해당 맥락에 요구되는 능력을 도출하고 도출된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학습내용이 선택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8]. [그림 8]은 개인 역량의 개념을 [그림 8]의 모형에 확장·응용해 본 결과이다.



[그림 8] 역량개념을 반영한 피셔 모형 확장

성교육의 시작은 성과 신체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 예를 들어 신체기관의 이름이나 남녀 간의 차이 등에 대한 학습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기초적 사실을 기반으로 성적인 욕구와 사랑받고자 하는 동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성적욕구와 동기는 개인의 특질과 태도,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두 요인에 대한 학습과 연관관계에 대해 조명할 필요가 있다. 성적욕구와 동기, 성적 특질과 자아개념에 관한 이해는 성 및 임신-출산에 관한 다소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식 습득의 전제 조건이 된다. 또한 지식은 성적 특질과 자아개념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므로 이 두 요인의 밀접한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성 그 자체와 성적 행동에 관련된 스킬의 체득은 그 다음

단계이다. 특질, 자아개념(태도, 가치관 등), 욕구, 동기 및 성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 없이 스킬의 체득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정도의 여성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에 관한 교육은 단순히 성적폭력의 심각성, 후유증 등에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나치게 피해방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면 성적 관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만을 부각시키게 되어 정상적인 욕구 충족이나 남녀관계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적장애인 집단의 경우 적절한 성적 표현을 직접 하거나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다양한 환경 하에서의 적절한 성적 대응방식에 대한 지식 축적과 스킬체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고립정도가 악화되는 순환이 계속된다. 낮은 사람들의 친절한 행위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진한 것도 불충분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이런 취약점들이 바로 지적장애인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게 된다.

피해방지대책은 일종의 스킬로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교육은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 대한 교육이 모두 마무리된 후, 신체의 사적 부위의 소중함과 가치(기초적 사실 및 성적 동기에 관한 이해), 성폭력 상황의 배경(가해자의 욕구 및 동기에 관한 이해), 그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비정상적 환경에 대한 이해(태도나 가치관과 같은 자아개념 형성), 성폭력이 가져다 볼 수 있는 무서운 결과(지식 습득 및 이를 통한 자아개념 형성), 성폭력회피 및 대처방법(스킬 습득) 등의 내용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장애인 대상의 디지털 성교육 콘텐츠 프로그램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디지털 성교육 콘텐츠 구성에 대한 연령별 제안과 피서의 성교육에 관한 정보·동기·행동·스킬 모형을 인적자원 개발에서 흔히 논의되는 역량이라는 개념의 모형을 적용·확장하여 성적역량이라는 목표 하에서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모형과 현황조사를 바

탕으로 적절한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적 측면으로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성교육 콘텐츠는 질적·양적으로 매우 뒤떨어지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을 통한 디지털 성교육 콘텐츠를 보여주는 구미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는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으며, 반복학습이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듯 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적장애인들이 흥미 있어 하는 유명 캐릭터를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집에서 반복학습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성인기 이후의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알아본 국가차원의 우리나라 지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성교육 콘텐츠 현황은 현재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2D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몇 장면의 내용과 비디오 뿐이었다. 내용 또한 학령기 아동을 위한 간단한 상식 전달 정도의 내용으로써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지루한 캐릭터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학령기 아이들을 위한 흥미있는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3D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성인기 이후 지적장애인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디지털 성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학령기 이후 지적장애인 성인들은 일반인들처럼 우연학습을 통한 성교육 체득이 어려우므로, 게임이나 다양한 홈페이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성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성교육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학령기 이후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오영석, 박원희(2008)는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은 질적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특히 개인차의 특성을 갖는 지적장애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7]고 했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달리 지적장애인은 온갖 성

폭력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성교육 프로그램 교육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를 통한 참신하고도 양적·질적으로 충족되는 높은 품질의 디지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국미경, 안남남 (2001). 정신지체학교 교사 및 학생 성교육 실태 분석, 발달장애학회지, 5(1), 123-139.
- [2] 권윤희 외 (2001). 여고생의 성교육 실시 전·후의 성태도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회, 35, 98-122.
- [3] 류시덕 (2000). 성교육을 통한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성의식 변화,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문인옥 (2000). 청소년들의 성문화,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67-267.
- [5] 박원희 (2002). 중도·중복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방향 : 평생학습차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연합뉴스 (2008). 성폭력피해 7.9%는 장애인, 12월 26일자 기사.
- [7] 오영석, 박원희 (2008). 정신지체인 평생교육 필요성과 지원방안, 평생교육연구, 14(4), 83-101.
- [8] 오현석 (2007). 역량중심 지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논총.
- [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교육정보화백서.
- [10] 한상숙, 국미경 (2004). ICT를 활용한 성교육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3), 87-100.
- [11] Barak, A. & W. A. Fisher. (2003). Experience with an Internet-based, theoretically grounded educational resource for the promotion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8(3), 1468-1479.
- [12] Bloom, B. 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NY: McGraw-Hill Book Company.
- [13] Elkins, T. E., Kope, S., Ghaziuddin, M., Sorg, C., & Quint, E. (1997). Integration of a sexuality counseling service into a reproductive health program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J Pediatr Adolesc Gynecol, 10, 24-27.
- [14] Fisher, W. A., Fisher, J. D., & Harman, J. (2003). The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A general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promoting health behavior: in Social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Health and Illness. W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15] Garbutt, R. (2008). Sex and Relationships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 Challenge for Parents and Professionals. Mental Health and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5, 266-277.
- [16] Hagley, M., Agle, M., Pearson, H. & Carne, C. (2002). Sexual health advice centre.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 Health, 14, 125 - 130.
- [17] Hingsburger, D. (1995). Just say know: Understanding and reducing the risk of sexual victimiz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astman, Quebec, Canada: Diverse City Press.
- [18] Korat, O. & Shmir, A. (2007). Electronic books versus adult readers; effects on children's emergent literacy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journal of Computer-Assisted Learning, 23, 248-259.
- [19] Levy, H. & W. Packman. (2004). Sexual Abuse Prevention for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Considerations Genetic Counselors. Journal of Genetic Counseling, 13(3), 189-205.
- [20] Miller, K. (2002). Preventing risky sexual behaviors in adolescents. American Family Physician, 66, 1311-1314.
- [21] Nathalie A. Gougeon. (2009). Sexuality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critical pedagogical approach : outing the ignored curriculum, Sex Education, 9(3), 277-291.
- [22] Schwier, K. M., & Hingsburger, D. (2000). Sexuality: Your sons and daught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1st ed.).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 [23] Spencer, L. & Spencer, S.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24]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5). Education and treatment in Human Sexuality: The Training of Health Professionals. Report of a WHO Meeting(WHO Technical Report Series No. 572).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5] <https://www.itall.or.kr/>.

[26] <http://www.ppfk.or.kr/>.

박 원 희



- 1975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 학사
- 1985 Wichita 주립대학 교육심리학 석사
- 2002 중앙대학교 교육사회학 박사
- 현재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및 특수교육대학원 원장
- 관심분야 :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장애인성교육, 장애인 여가문화 등

· E-Mail: dklivings@yahoo.co.kr

최 연 숙



- 2005 성균관대학교 교육학석사
- 2009 세종대학교 특수교육학 석사
- 현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 박사과정 재학 중(장애인평생교육복지 전공)
- 관심분야 : 장애인평생교육복지, ADHD, 장애인 성교육

· E-Mail: craig1004@empas.com

박 성 택



- 2003 충북대학교 경영학석사
- 2010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 박사)
-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관심분야: 특허가치평가, R&D, 특허경영전략, 비즈니스 전략

· E-Mail: solpherd@skku.edu